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시드기야가 패배할 것을 말씀하심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3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네가 바벨론 왕을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 시드기야가 맞을 최후

4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5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네 조상들, 곧 네 선왕들을 위해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향하고, '슬프다, 주인이여!'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6 그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7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 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 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거슬러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 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갈 테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3절)
또, 어떤 죽음을 맞게 되나요? (4-5절)
2.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로 인해 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7절)

• 답아가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간절히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마음을 바꾼 사람들** 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9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0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11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 **선포되는 심판** 12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14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 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네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15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6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 준 그 남녀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18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19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20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21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22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3 묵상하기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점점 승통을 조여오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14절)을 따라 유다 사람들 중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15절).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얼마 안되어 바벨론의 공격이 느슨해지자 마음을 바꿔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들인 것입니다(11절). 이것은 진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순종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척'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결국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22절). 순종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4 적용하기

나 또한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했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 곧바로 나 몰라라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척'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니 은근슬쩍 원래 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간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이 '척'인지 '진짜'인지 다 아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나의 회개는 그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인가요, 내 진심에서 우러난 겸손한 고백인가요?
- ② 유다 사람들처럼 급할 때나 혹은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은근슬쩍 넘어간 약속이 내게도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께 '척'하는 순종이 아닌 '진짜'를 드리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레갑 자손에 대한 시험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3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4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5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 레갑 자손의 반응

6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7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8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9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니다. 10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11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3 묵상하기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그들과 뜻을 같이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면서 자손들이 타락하게 될까 봐 포도주를 먹지 말고 천막에서 지내며 유목 생활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의 명령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온 것입니다(6-10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신념을 당시 최고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한 시험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No!"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이 내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내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했던 결단이 있나요? 그러나 그 결단이 때와 장소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레갑 족속의 단호한 "No!"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이 내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이나 약속이 있나요? 그것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나요?
- ②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단들이 자꾸만 죽대 없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바로 세울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한 결단을 지키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순종한 레갑 자손들과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

12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14**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둬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15**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둬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 다른 결말

17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19**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 묵상하기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 멸망할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던 예루살렘에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던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교만과 착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17절).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인 레갑 자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19절). 이처럼 내 앞에 불순종의 좋은 예와 순종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 거둬 말씀하시며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14-15절) 앞에 내 모든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관계 속에, 여러 상황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불순종의 유혹을 나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한 세대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마음과 행동과 선택을 모두 그분께 맡기고 순종할 용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순종의 본보기인 레갑 자손과 불순종의 본보기인 유다 백성 중,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 ② 얼마나 오래 신앙 생활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말씀이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기록하고 읽어 주어야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2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3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4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5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6 네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네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와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 주어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 주어야. 7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8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와 성전에서 여호와와 말씀의 책을 읽었다.

· 두려워하는 관료들 9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10 그때 바룩이 여호와와 성전 '새 문' 입구 위쪽 뜰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11 사반의 손자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와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12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불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라,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13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 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14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 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15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 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16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17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 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18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19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그렇게 수도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도 혹시 이번에는 돌이킬까 싶어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사랑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곧바로 옆드려 회개하고 어긋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룩이 읽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동요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는 고민이나 소동이 아닌 즉시 옆드리는 회개와 돌이킴이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금식도, 봉사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 그때가 남아 있는 회복의 기회임을 알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간혀서도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열정,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은 바룩의 수고를 본받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으실 준비가 다 되셨는데, 정작 나는 회개보다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저를 내려놓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

20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21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 주었다. 22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 23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 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24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26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 다시 기록하라

27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 버린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28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29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30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31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32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 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3 묵상하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경청이 아닌 '무시'였고, 회개가 아닌 '반발'이었으며(29절), 경외가 아닌 '파괴'였습니다(23절).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들을 듣는 족족 다 태워버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26절).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 해도 무시할 수 없고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린 두루마리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28절), 여기에 여호야김 왕의 죄에 대한 징벌을 더하십니다(30-31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시하거나 반발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은 그저 "아멘!"이고, '순종'이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매일 묵상하는 짧은 말씀,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세밀한 말씀들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발끈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겸손히 듣고 듣는 즉시 순종하고 돌이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나는 QT, 설교말씀, 성경공부 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②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선택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더라도 달게 듣고 나를 돌아보며 즉시 돌이키는 겸손함이 나에게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중보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 왕

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2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3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셸레먀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4 그 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5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6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8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9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